

문화

동네에 학교에 복지시설에... 문화예술 퍼뜨린다

최근 들어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다.
각급 학교와 문화관련 단체, 사회 복지시설 등에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진행되고는 있지만 빈약한 프로그램 등으로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최근 문화예술 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기관이 공식 출범했다. 울초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과정을 거쳐 광역 단위 문화예술교육 지원 기관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는 전문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 사진은 '수상한 교육 문화공동체-결'에서 진행한 음악 교육 프로그램 모습.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활동 시작
우수 프로그램 보급 등 체계적 교육 지원

선정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센터장 오건탁·이하 교육센터)가 미술교사 워크숍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프로그램 운영에 들어갔다.
모두 3억원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교육센터는 광주시청차지미디어센터, (재)광주비엔날레 등 지역 문화 관련 기관들과 협력체계를 구축,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인력양성에 나서는 등 문화예술교육의 구성성 역할을 하게된다.

시간의 교육을 마친 교사가 2학기중 디자인 관련 수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수업진행비도 지급한다.
사회복지 시설 운영 인력들에 대한 교육 역시 지원센터가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이다. 예술단체들이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 대신 각 사회복지 시설 현장에 적합한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밀착형 프로그램을 발굴·육성하는 '우리동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동 주민센터, 경로당, 어린이도서관 등 자신들이 살고 있는 동네 문화시설을 활용한 프로그램이다.
▲네트워크 구축, 우수프로그램 발굴
신발적으로 흠여져있던 문화예술교육 관련 정보와 인적 자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사업들도 진행한 주시청차지미디어센터와 '미디어로 꿈꾸는 문화예술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허브사이트를 구축하고 자료 수집과 사업 내용을 홍보할 통신원 5명도 선정했다. 또 교육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뉴스레터를 발행하고 우수 사례 프로그램도 공모할 예정이다.
그밖에 센터 공간을 활용, 문화예술관련 책과 DVD, 비디오 등 전문 자료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는 인포센터와 북카페를 운영한다.
또 이날 안으로 예술인·문화예술교육 기획자와 강사, 문화시설 종사자 등을 중심으로 광주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모임을 구성할 예정이며 시

장을 위원장으로 한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와 실무협의회도 만든다.
박정주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팀장은 "지원센터는 문화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단체·개인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워크숍 등을 통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며 "수준높은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62-670-576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제28회 대한민국미술대전 한국화부문
강요상씨 최우수상

제28회대한민국 미술대전에서 강요상(33·조선대 미술학과 강사·사진)씨가 한국화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미술협회는 7일 "제28회대한민국미술대전(보전시 부문) 심사결과 손성일(양화)씨가 대상을 수상했고 김창환(조각), 김도연(한글)씨 등이 각각 최우수상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옛이야기'를 출품한 강씨는 심사위원들로부터 "태초의 이미지를 잘 살렸다"는 호평을 받았다.
조선대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한 강씨는 광주시미술대전, 전남도



미술대전에서 상을 받았고, 서울과 광주 등지에서 7차례 개인전을 가졌다. 현재 선목회, 선동인, 광주청년미술작가회 회원으로 활동 중이다.
한편 한국미술협회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미술대전은 보전시(비구상, 서예, 문인화)와 가을전시(구상, 디자인, 공예)로 나뉘어 심사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시 창작 연구하는 서은문학연구소
'사랑이 꽃처럼...' 등 시집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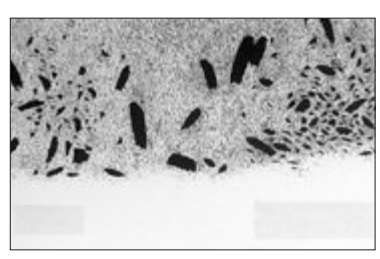
서은문학연구소가 7일 오후 7시 광주시 동구 금동 베니스웨딩컨벤션에서 '시집 출간의 밤' 행사를 가졌다.
서은문학 연구소는 문병란 시인을 중심으로 시창작과 시를 연구하는 단체로, 이날 행사는 개소 후 시집을 낸 시인 4명의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였다.
이날 행사에서 문병란 시인은 시집 '마화연풍'(코리아 펄브)을, 문 시인의 제자 문재철 시인(서은문학연구소 사무국장)은 첫 시집 '머물지 않는 바람', 구용수 시인은 '사랑이 꽃처럼 눈뜨는 시간'에 '사진', 최영희 시인은 '비오는 날의 연가의 출간을 알렸다.
'사랑이 꽃처럼 눈뜨는 시간'에'를 낸 구용수 시인은 1945년



광주 출생으로 광주 일고 등에서 35년간 교사로 재직하다 정년 퇴임했으며 2008년 '문예시대' 사부문 신인상으로 등단해 시작 활동을 했다.
최영희 시인은 신인 출신으로 2007년 '문학예술' 신인상으로 등단했으며 현재 조선대 대학원 문학과에서 창작수업을 받고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오덕렬 광주문인협회회장을 비롯해 손광은 시인, 전원범씨 등 200여명이 함께해 시집 출간을 축하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하늘과 땅의 생성과정 '붓질'

14일까지 정인수 개인전
인사동 '갤러리 라이트'
먹의 변질을 통해 인간의 내면 세계를 표현하고 있는 한국화가 정인수 씨가 8~14일까지 서울시 인사동 광주시립미술관 갤러리 라이트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정씨는 이번 전시에서 '생성과 순환'을 주제로 먹의 농담과 변질, 선의 변화가 돋보이는 수작 30여점을 선보인다. 부드럽고 유연한 먹의 움직임으로 통해 하늘과 땅의 생성과정을 담았다.
굵은 붓과 가는 붓을 함께 사용해 다양한 선을 표현했고, 자연스럽게



'환원'
스민 먹의 아름다움이 느껴지는 작품이다.
호남대 미술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한 뒤 한중국제교류전, 아시아미술대전 등의 전시에 참가했다. 한국미술협회, 순천청년작가 회원으로 활동 중이며, 광주시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이다. 문의 062-510-0134.
/오광록기자 kroh@

뉴욕 플라자 호텔 719호에선 무슨일이?

인기 극작가 닐 사이먼 작 '스위트 플라자'
극단 '청춘' 9~11일 씨디아트홀 무대 올러
인기 극작가 닐 사이먼의 작품 '스위트 플라자'가 무대에 오른다.
9~11일(평일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5시·8시) 전남대 정문 사거리 씨디아트홀.
광주소극장축제 참가작으로 극단 '청춘'이 선보이는 '스위트 플라자'는 뉴욕 플라자 호텔 719호에서 펼쳐지는 세 개의 에피소드를 모은 올드버스 연극이다.
1부 '잠깐 들른 손님'은 결혼 23주년을 맞아 첫밤을 보냈던 호텔을 다시 찾은 중년 부부의 이야기다. 결혼기념일에도 일에만 몰두하는 남편에 아슬하게 하던 아내가 남편의 외도까지 알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
2부 '할리우드에서 온 손님'은 할리우드 영화제작자와 첫사랑 연인이 이별아가는 에피소드다. 오

랜 헤어짐이 오히려 새로운 사랑의 시작으로 이어짐을 담고 있다.
3부 '결혼식 손님'은 결혼식 준비를 위해 빌린 호텔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결혼식은 다가오는데 정작 화장에 들어간 딸 아이는 울기만 할 뿐 나를 생각을 않고, 초조해진 부모는 딸 아이를 설득하려 애쓴다.
이기인·오성균·김은미·채희영 씨 등이 출연한다. 일반·대학생 1만 5천원, 청소년 1만원. 사랑티켓 참가작이다. 문의 062-430-5257.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에이옥션 10~16일 온라인 미술품 경매

전통 미술품 경매 회사인 에이옥션(대표 서정만)이 오는 10일~16일까지 7일 온라인 경매(http://www.auction.co.kr)를 실시한다.
이번 경매에는 한국화, 서양화, 고서화, 고가구, 조각 등 130점이 출품되며, 시작가가 100만원대여서 컬렉터들이 큰 부담없이 작품을 구입할 수 있다. 또 현대미술에 주안점을 둔

다른 경매와는 달리 고서화가 다량 출품됐다.
경매에 참여하는 대표 작가는 황영성, 장기우, 강정진, 김중학, 김익모, 이철수, 지용철, 김형근 등이다. 또 한국화, 고미술에서는 김기창, 김병중, 허건, 황홍하, 윤용구, 이상범, 허백련의 작품을 선보인다. 문의 063-285-7007.
/오광록기자 kroh@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법원부동산경매정보' (Court Real Estate Auction Information) by '국민법률경매(주)' (National Law Auction Co., Ltd.). The ad features a large table with columns for '지역' (Region), '구' (District), '소재지' (Address), '면적' (Area), '건평' (Floor Area), '건물' (Building), and '매각가' (Auction Price). The table lists various properties across different districts like Gangseo, Dong-gu, and others. Contact information for 정미경 (Jeong Mi-kyung) is provided: TEL: 062-351-0664, H·P: 010-7628-0664.